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여론은 힘이 세다. 그 안에 민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의를 읽어 내는 도구 중 하나가 여론조사다. 따라서 그 또한 영향력이 크다. 여론조사는 쓰임새도 다양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중대한 정책 결정에도 활용된다. 찬반이 갈렸던 신고리 원전 5·6호기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속의형 여론 조사’인 공론화로 결판났다. 선거 때면 후보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는 살생부가 되기도 한다. 평소에도 주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평가 수단이 되어 그들을 웃고 울게 만든다.

민선 7기 출범 1년 주민 평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매일 실시하는 ‘광역 자치단체 평가’가 광주·전남 공직 사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최근 조사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앞서거나 뒤처지지 치열하게 선두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3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도지사 가운데 이용섭 광주 시장이 1위를 기록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시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데

의 지지율은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시장이 1위를 차지한 건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44.1%의 지지율로 10위에서 출발했다. 이후 8월 9위(47.6%), 9월 5위(55.8%), 12월(52.3%)과 올 1월(51.3%) 4위, 2월(54.8%)과 3월(58.2%)엔 2위를 기록하며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0월(52.4%)과 11월(49.0%) 연속 8위를 차지하며 일시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오름세가 가파르다. 지지율 상승의 비결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리얼미터가 민선 7기 이후 실시한 열 번의 여론조사 데이터와 지역 이슈를 연결해 분석하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무려 16년 동안 계속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을 매듭지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4위로(직전 8위) 뛰어오르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또한 ‘탐3’에 처음 진입한 올 2월 조사 직전에는 국가적 어젠다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장 설립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타결시켰다. 정책의 성공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 지사의 기세는 더욱 놀랍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조사에서 이용섭 시장이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9개월간 줄곧 1위를 지켰다. 지지율도 61.8%(2018년 7월)~57.8%(2019년 4월)로 꾸준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여기엔 한전공대와 스마트팜 혁신 벨리 지역, ‘어촌 뉴딜 300’ 전국 최다 선정과 더불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지사는 민선 7기 시작부터 선두를 달려 왔다는 점에서 선전의 요인을 꼭 짚어 말하기는 힘들다. 굳이 꼽는다면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농정의 틀을 잡고 쌀값 안정

등을 힘쓴 점, 도지사 출마 당시 내건 전 남평 기본소득제 도입 등 공약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선 37기째인 광주·전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도 후하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 2위(49.5%)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11·12월 두 달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10개월간 58.8%~46.7%의 지지를 얻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번갈아 1·2위를 지키고 있다. 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생과 교실 중심의 혁신 정책, 탈권위 행보 등이 공감을 이끌어 낸 결과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월 조사에서 4위(47.1%)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1위(41.4%)로 출발해 11월에는 15위(39.2%)까지 추락했다가 녀 달 만인 지난 3월 3위(46.3%)로 수치 상승했다. 3월부터는 특·광역시 교육감 여덟 명 중 으뜸을 기록하고 있다.

고공 지지율 혁신 동력으로

“진실은 하나의 여론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 사이에 있다”는 말이 있다. 민심의 흐름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비교 검증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가다. 시도지사 직무 수행과 관련 한국갤럽은 매년 상·하반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9·12월 전국 성인 1만 5026명(시도별 3710명~1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시도별 ±1.6~7.2%포인트)에서 김영록 지사는 59%의 지지율로 전국 2위, 이용섭 시장은 52%로 6위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점의 두 여론조사 결과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다.

광역 단체장 지지율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도 밀접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남의 주민 생활 만족도는 올 들어

면 달라진다. 아이들의 전통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일본의 ‘다루마상’가 고른다(達摩(たるとま)さんがころんだ, 달마가 구른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에 따르면 달마를 희화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한 이가 있었다. 평생을 무궁화 보급에 힘썼던 남궁억 선생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설화의 주제인 권선징악, 착한 이의 행위를 약한 이가 답습하는 모방담은 세계 공통이다. 무비판적 수용을 반성하여 일본 문화의 흔적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다음 세대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큰 정치가(statesman)이자 행정가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일본의 조선인에게 총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줬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 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뽕달리고 송곳기가 드러난 도깨비가 나오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고유의 전래동화로 알고 있지만, 일본 도깨비 ‘오니(おに)’를 알

전국 1~2위를 지키고 있고 광주도 7위에 서 4위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을 이끄는 수장들이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모습은 지역민들에게 반갑고 흐뭇한 일이다. 높은 지지율은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두터운 응원을 보내는 지역민들에게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종합 예술’이라고 할 만큼 복잡다단한 지방 행정을 한두 개의 여론조사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보은 인사로 인한 잡음이나 정책 혼선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풍부한 행정·의정 경험을 지닌 두 단체장의 시도 상승 다짐이 구두 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이나 광주 군 공학이전을 둘러싼 대립은 지역민들을 되레 갈등으로 밀어 넣고 있는 형국이다. 전 입단체장의 사책을 계승해 성과를 낸 것은 평가해 줄 만하지만 취임 1년이다 되도록 이렇다 할 자신들만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다. 높이 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한다. 광주와 전남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의 이탈 가속, 경기 부진 등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민선 7기 남은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부단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다음 세대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큰 정치가(statesman)이자 행정가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은편칼럼



김창군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해도 체면 깎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양반은 얼어 죽어도 ○○은 쪼지 않는다’인데, ○○에 들어갈 말을 ‘얼어 쪼는 불’을 가리키는 ‘결벌’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다. 양반 체면에 남이 쪼는 불 곁에 빌붙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겨울 태우는 불’처럼 지지부진한 불(결벌)은 쪼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겨로 불을 때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팔하게 타오르지 않는다. 이를 체면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결벌’이 오히려 효율적인 의미 전달 매체일지 모르겠으나, 속

지을 전가, 기억할 전가

담에 담긴 정서가 온전히 전승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꽃게’는 17세기 문헌에 ‘긋게’로 기록되었다. 본래 ‘꽃게’를 당시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긋’은 ‘곡괭이, 송곳’ 등에 남은 흔적처럼 ‘꼬챙이’란 뜻으로, 지금도 ‘호미꽃’과 같이 ‘바다로 돌출한 육지의 선단부(岬)’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옛날에는 등딱지 앞 끝에 꼬챙이처럼 뾰족한 뿔이 있어 ‘긋게’로 불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두움이 된소리로 바뀌며 한자어 ‘화해(花蟹)’와 대응하는 ‘꽃게’가 되었고, 삶으면 꽃처럼 붉게 변하여 붉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조리 후의 변화로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 모든 게는 삶으면 붉어진다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맥락을 놓치면 내용이 왜곡되고,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하다 보면 본뜻을 망각하여 와전(訛傳)하게 된다. 그래서 현상을 돌아보고 근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

즘 일제의 흔적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사실(史實)을 지우기에 앞서 바탕을 찾아 기억하는 것도 후일을 위한 대응일 것이다.

일제의 침탈은 명산의 정기를 끊고자 주역 지맥에 말뚝을 박는 데 이르기까지 계획적이며 집요했다.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あべ) 信行)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줬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 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뽕달리고 송곳기가 드러난 도깨비가 나오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고유의 전래동화로 알고 있지만, 일본 도깨비 ‘오니(おに)’를 알

면 달라진다. 아이들의 전통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일본의 ‘다루마상’가 고른다(達摩(たるとま)さんがころんだ, 달마가 구른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에 따르면 달마를 희화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한 이가 있었다. 평생을 무궁화 보급에 힘썼던 남궁억 선생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설화의 주제인 권선징악, 착한 이의 행위를 약한 이가 답습하는 모방담은 세계 공통이다. 무비판적 수용을 반성하여 일본 문화의 흔적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다음 세대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큰 정치가(statesman)이자 행정가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강은희 수필가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모두 다 놀러라 062-518”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자신들의 노래 ‘마 시티(Ma City)’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자 국의 팬들이 가사의 의미를 번역하면서 5·18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세계를 향한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아! 5·18, 빛고을이어 -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을 보고

들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이해 뜻 깊은 작품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졌다. 이 지역이 낳은 위대한 시인 문병란의 시에 광주의 자랑, 김성훈 작곡가가 곡을 쓴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이 공연된 것이다.

“해와 달이 빛나는 의혈의 고장 빛고을, 5월의 풀뿌리 꽃넋들 누워 민주주의 제단에 햇물로 타오른다.”

장엄한 합창이 끝나고 꽃넋이 일어나 노래를 한다.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소년은 어머니를 부르고, 그날만은 열렬한 광주의 시민이 되었다는 구두담이는 처음으로 조국을 부른다.

“오, 살아있는 형제여, 누이들이여, 벗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대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울어오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인가. 죽은 자가 오히려 산 자를 위로한다. 그들의 위로에, 전라도 빼꾸기는 핏빛 울음을 삼키며 하나둘씩 울어대더니 어둡고 온 천지를 진동시켰다. 마치 5·18 민주 정신이 하나둘씩 울려 퍼져 결국,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들의 낮은 위대한 부활의 노래를 부른다. 태산 같은 슬픔이 가슴을 짓누르는 데, 강물 같은 눈물이 두 눈에 넘치는데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니. 캄캄한 어둠이 마음을 덮고 온 누리 눈보라 내리치는 밤, 마지막 등불은 꺼져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나.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둠을 덮고 시민은 노래했다. 용서하고 있었다.

“눈빛 고운 연인들이 달린 창을 열여라 가슴을 열여라 세계의 신바람 모두 불러들여…”

“칠천만 개의 만세가 하나가 되어 꽃으로 피고 빛과 빛이 모여 새날의 큰 빛이 되는 광주 무등산 빛 빛고을”

프랑스 시인 혁명이 프랑스의 문화 유산으로, 정신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듯이 5·18 민주화운동도 광주의 정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유산으로, 정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를 소중히 여기고 계승 발전시켜야겠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집에 가는 길, 그들의 눈물처럼 비가 흠뻑리고, 빼꾸기 울음소리 하나 둘 들리더니 온 천지에 가득 찬다.

社說

산적한 민생 현안, 여야 국회 정상화 결단해야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 국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 국회가 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조기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이 됐는데도 말이다.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그제 몰림 접촉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도대체 국회의원을 안중에는 민생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식목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내 탓 공방’으로 대립하며 민생을 내팽개칠 때가 아니라라는 얘기가.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분회의는 단사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법안 제출 건수는 2만 101건에 달하지만 처리율이 28.9%에 불과한 게 잘 말해 준다. 특히 정부의 추가 경제 예산안은 국회에 묶인

지 40일이나 됐다. 추가 경제 예산안 이외에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다. 게다가 처리 시한을 넘긴 민생 법안도 수도무적이다.

이럴 때일 수록 여야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라는 전제 조건을 거둬들이고 6월 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집권당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 합의 처리 노력’ 등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6월 국회 정상화는 미국 정부의 5·18 문건 기밀 해제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의 핵심 현안 해결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당장 만나 6월 임시 국회 소집 일정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양돈 농가 피해 없도록 돼지 열병 차단 총력을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방역망이 뚫리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중국 요녕성과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돼지의 눈물과 침, 분변 등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이 병은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폐사하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높아 국내에 전파될 경우 양돈 산업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비상 방역에 들어갔다. 전남 지역 580호의 돼지 사육 농가에 서 기르는 돼지는 110만 마리로, 전국 사

육량의 10%에 이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숙주로 삼아 국내에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양돈 농가에 포획 트랩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돼지 열병 바이러스 전파에는 중국 등 발생국의 감염 돼지고기나 부산물의 불법 반입,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먹이는 행위, 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나 야생 멧돼지의 이동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들 발생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검역과 방역이 중요하다. 돼지 열병 발생 지역 여행자들이 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리’가 가족이 된 것은 6년 반 전의 일이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토종 고양이인 ‘코리안 숏헤어’라는 품종으로 살구색 줄무늬가 있는 ‘치즈 태비’였다. 생후 6개월쯤 된 듯 보였는데 앙증맞은 모습이 귀여웠다.

‘애써서 잠깐 데려왔다’는 딸의 말에 속아 시작한 동거는 지난주 여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끝이 났다.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다. 2주 전 갑자기 여리가 사라졌다. 출근길에 나서면서 잠깐 현관 문을 열고 닫았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펫로스 증후군

펫로스 증후군이란 집안을 살살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경비실에 확인해보니 3층 아파트에서 모르는 고양이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해 포획해 갔다는 말이 돌아왔다. 계단에 있다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침대 아래에 숨어 있었다.

119를 통해 동물보호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데려왔다. 24시간의 외출이 있었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 했다. 동물 병원에서 검

사를 위해 마취 주사를 두 대나 놓았지만 끝내 잠들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진 눈이 아니었다.

문제는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음식은 물론 물조차 전혀 먹지 않더니 가끔씩 토하기를 반복했다. 가탈스런 성격 탓에 며칠 지켜본 후 병원에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병원에서 전염병 감염이 원인이라ں 얘기를 듣고 입원시켰다. 잠복기라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성묘여서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퇴근 무렵 쇼크가 발생했다는 병원

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화장터에 들러 유골함을 들고 밤늦게 귀가했다.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소확행’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소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소확행 하나가 사라졌다. 아침이면 몸을 비비면서 애정을 표현하던 여리를 볼 수 없으니 상실감이 크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